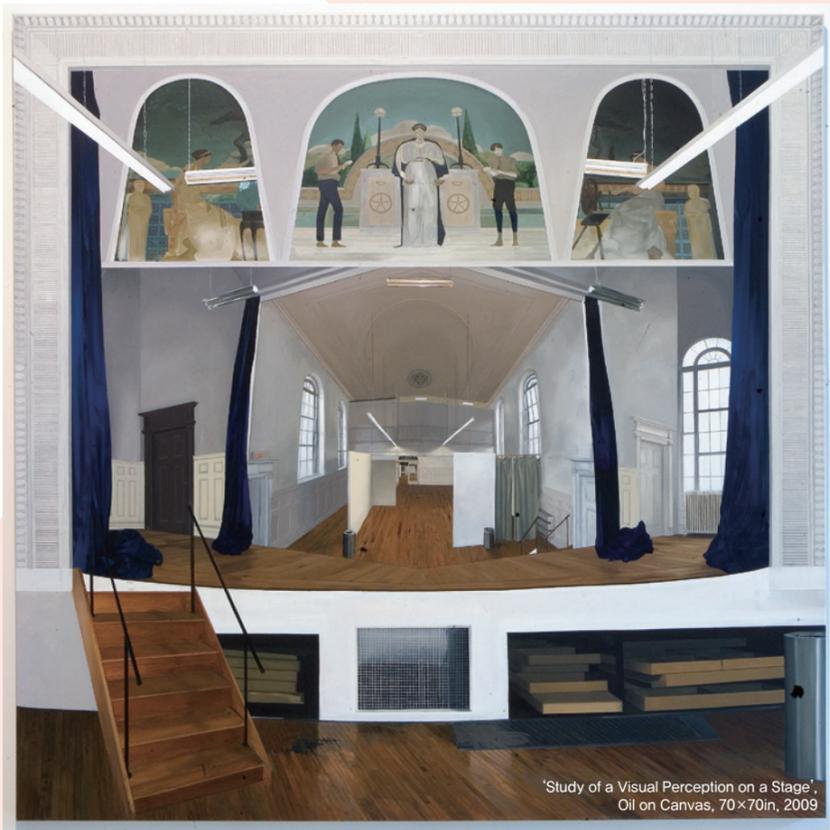


# 회화의 새로운 얼굴

회화라는 평면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의 젊은 회화작가들.



'Study of a Visual Perception on a Stage', Oil on Canvas, 70x70in, 2009



'Perspective Pattern Study', Oil on Canvas, 87x7in, 2014

## Questions

- 1 당신의 작업을 표현하는 세 가지 키워드?
- 2 작업의 시작점이 되어주는 것은?
- 3 노동집약적인 데다가 전통적인 방식인 회화라는 장르에 매료된 이유는?
- 4 작업 과정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면?
- 5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 6 항상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 7 최근에 일상에서 마주친 장면 중 회화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신이 있다면?
- 8 요즘의 화두는 무엇인가?



### 제니조

뉴욕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제니 조는 하나의 대상을 보는 무수히 많은 시점에 주목한다. 다양한 각도와 방향에서 바라본 대상을 회화로 재구성한다.

1 사이(In-Between), 시점(Perspective), 시대착오적(Anachronic). 2 모든 대립 사이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3 데이비드 호크니가 데미언 허스트의 작품을 꼬집으며 "눈, 손, 마음 중 두 가지 만으로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역시 숙련된 작가의 손을 작업의 시적인 부분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4 나는 오히려 특징적인 스타일을 없애는 유희적인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전시 중에 한 작가의 작품들이 맞나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5 현대 작가들에게 회화는 어려운 장르다. 1990년대부터 이미 '회화의 종말'이라는 담론이 나왔고 최근에는 현대회화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비회화'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무거운 서양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화가 살아남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금 나에게 회화는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싶다. 6 세잔의 풍경화, 피카소의 큐비즘, 데이비드 호크니의 사진 콜라주의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는 한국 근현대 회화에도 관심이 많다. 7 곱곰이 생각해보았지만 잘 모르겠다. 8 실제와 가상 공간 사이의 흐려진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 또는 이야기. 테크놀로지와 아날로그 사이에서 즐기기하는 전통 매체의 모호한 실존적 가치도 재미있다. 실 새 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사회 또는 미술계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싶럽하고 싶다.



'SCENE #7', Acrylic, Oil on Canvas, 193.9x390.9cm, 2012



'SCENE #8', Acrylic, oil on canvas, 180.3x291cm, 2012

## 2 백승민

백승민이 그려낸 화려한 세계는 언뜻 보면 아름다운 원더랜드로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는 냉철한 현실 의식이 담겨 있다. 현실의 모습과 똑같이 닮은 가상의 국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1 가상 국가, 현실 비판, 강박. 2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체계와 구조에 관심이 많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매스컴의 보도 중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다. 작품 속에서 허구적 세계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 비판하고, 회화화하고, 조롱한다. 3 역사적으로 회화의 한계라고 평가받았던 환영이 개인적으로는 여러 난제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회화에서의 환영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도출한 후에도 끊임없이 작업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다. 4 일정한 단계를 설정해놓고 수행하듯이 작업을 한다. 첫 번째,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한다. 두 번째, 작성된 글을 바탕으로 글 속에 등장한 소재를 해체, 나열, 재구성하여 드로잉한다. 세 번째로는 드로잉을 여러 매체로 구현하는데, 회화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 단계에서 파생된 모든 작업의 결과물을 아카이빙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5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무형의 개념을 현실의 이미지로 치환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6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를 한 명만 꼽으라면 데이비드 호크니다. 최근에는 요세프 알버스(Josef Albers)의 작업을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다. 7 내가 생각하는 '회화적'이라는 말은 그림과 같은 장면이나 풍경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의 특정 장면에서 '회화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8 기하학에 관심이 많다. 최근작은 단순한 선과 면, 도형 등의 조형 요소를 사용하여 추상화된 양상을 보인다.



## 3 설박

붓대신 콜라주 기법으로 완성한 설박의 수묵화는 대범함과 섬세함, 전통적인 필치와 현대적인 조형미를 동시에 갖췄다. 수묵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그녀는 작업 그 자체를 즐기는 호방한 예술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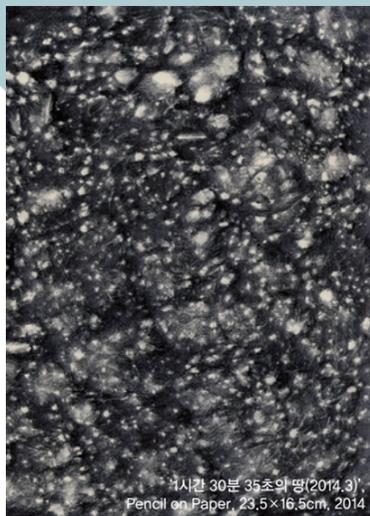
1 우연, 즐거움, 신(新). 작품에서 우연이 큰 몫을 한다. 작업 초반부에 화선지에 먹을 염색하는데 그때 화선지 위에서 먹이 번져가며 의도하지 않은 무늬나 패턴이 생긴다. 이 종류가 마르고 나면 어떤 무늬가 태어날까 기대하는 재미가 있다. 재미있는 무늬가 나와야 재미있는 작업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초반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걸 그리든 즐겁지 않았다면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작품 안에 즐거움이 담길 희망한다. 그리고 마지막 신(新)은, 전통과 모던을 적절히 혼합한 나의 작품을 스스로 '신수묵화'라고 칭하고 있다. 2 작업의 시작점은 언제나 '나'다. 내가 예술을 하는 행위는 자아성찰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 내가 표현하는 산은 산(Mountain)이 아니라 자연(Nature)에 가깝다. 캔버스에 직접 드러내진 않았지만 작품 속의 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무한한 포용력을 가진 산은 작업에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준다. 산을 벗삼아 예술을 즐긴다고 해야 될까? 3 회화 자체보다 화선지와 먹이라는 재료에 먼저 매료되었다. 먹을 화선지에 운용할 때 생기는 농담, 번짐, 향에서 매력을 느꼈다. 설법적인 소재와 색을 작품에 채우기보다는 여백의 미, 절제 있는 표현, 철학 등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수묵화가 좋다. 4 전통에 현대적인 감성을 가미한 산수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수묵산수화는 붓으로 그린다. 난 붓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콜라주 기법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먹의 농담을 실려 화선지를 염색한 다음, 산의 형태로 조각 조각 손으로 오려서 캔버스에 그 조각들을 중첩시키며 산세를 만든다. 그래서 작품을 실제로 보면 여러 겹 보이고 구겨진 화선지의 질감이 살아있는 독특한 산을 느낄 수 있다. 5 인생을 살며 느낀 감정이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를 성찰하고 탐구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 6 현재 중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다. 7 여행을 갔다가 똑같은 디자인의 여행 가방을 메고 손을 잡은 채 느리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 백발 노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8 지금까지는 주로 자연, 산에 나를 투영시키는 작업들을 시도했다. 최근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본래 자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풍경을 날카로운 단면과 도형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어떤 풍경', 화선지에 먹 콜라주, 100x170cm, 2015



'24초의 달', Pencil on Carbon Paper, 250x122cm, 2013



'시간 30분 35초의 땅(2014.3)', Pencil on Paper, 23.5x16.5cm, 2014



**강동주**  
 강동주는 도시의 시공간을 종이 위에 옮기는 성실한 기록자다.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움직이며 1백걸음마다 한 번씩 멈춰 서서 바라본 바닥의 표면을 담은 식이다. 두산 갤러리 서울에서 10월 3일까지 열리는 <전야(The Night Before)>에서 최근 작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1 서울, 시간, 집면. 2 풍경. 사람처럼 어떤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접근이 어렵다. 풍경은 대상으로 여겨지기보다 시간으로 읽힌다. 그리는 동안에도, 그리고 나서도 계속 곱씹게 만들어준다. 내가 보고 있는 무언가를 계속 주시하게 한다. 밤의 풍경, 암흑의 세계를 그리게 된 계기가 있다. 원가를 그린다는 게 힘들어졌을 때, 무심코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봤더니, 그게 밤이었다. 모두가 최소한의 흔적처럼 남는 시간이었다. 3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못했다. 내 생각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렵기도 했고, 왜 내가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말하기를 포기하게 된 적도 많았다. 그런데 그림은 말과는 달랐다.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누구 하나 그 이야기를 재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좋았다. 다른 매체가 아닌 회화에 매료된 건, 손가락 쥐고 밥 먹는 걸 배웠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이었다. 4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전 <전야(The Night Before)>의 작품들은 집에서 출발하여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본 풍경을 기록한 시간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주위의 어둠과 빛, 과거와 미래, 분절된 풍경의 면과 면이 서로를 비추고 관통하는 과정을 담으려고 했다. 5 내가 조용한 시간을 그리는 것. 사실 시간이라는 기록을 그린다는 게 어불성설일 수 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재현해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고민하고 있다. 6 몇 년 전부터는 제 3세계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매체보다는 그들이 그들 주변을 말하는 태도가 흥미롭다. 최근에는 프란시스 앨리스의 작품 'Boleto(Shoe Shine Blues)'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다. 7 누군가와 함께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 도착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는 서울의 주변부에 살고 있고 나는 서울 안에 살고 있는데, 같은 장소의 방향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참 이상했다. 각자의 주변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재미있기도 했다. 8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거를 향하는지, 미래를 향하는지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과거를 보내고 미래를 건디는 일이 될지, 미래를 등지고 과거를 곱씹는 일이 될지, 그 방향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Blind Site-Sunken air', Oil on Canvas, 193.9x130.3cm, 2013



'Blind Site-Vacant', Oil on Canvas, 162x97cm, 2013



'Blind Site-White quarter', Oil on Canvas, 116.7x80.3cm, 2013



'Blind Site-White Scene', Oil on Canvas, 130x89.4cm, 2014



**오희원**  
 갤러리에 가면 모두가 작품을 본다. 작품이 걸려 있던 전시 공간은 마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기억 속에서 휘발되고 만다. 오희원은 작품이 걸려 있지 않은 순백색의 전시공간에 주목했다. 마치 시진처럼 보이는 'Blind Site'는 그동안 가치 중립적으로 여겨졌던 전시공간의 개성을 드러내는 회화 작업 연작이다.

1 배경, 자음과 구획의 반복, 주어진 환경과 그 위에 놓인 작가의 위치. 2 인물 뒤에 물러나 있는 배경, 나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에 관심을 가져왔다. 전시장을 소재로 한 작업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대학 때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불이 꺼지고 인적이 사라진 텅 빈 전시장을 목도한 사적인 경험이 'Blind Site' 작업의 출발점이었다. 3 'Blind Site' 연작에서 회화는 구축의 방식을 통해 세계를 표현하는 건축과 유사하다. 이미지(그림)로 시작한 건축은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물화한 공간은 다시 사진 이미지로 기록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의식하면서 나는 사진을 보조 수단으로 삼고, 구조물을 다시 회화 이미지로 재현해 나가면서 층위의 구조를 명료한 시선의 그림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다. 4그런 이의 필력이나 호흡이 드러나는 직접적인 투사 방식보다는 정직한 구현을 선호한다. 작가의 손을 통해 구조는 쌓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흔적은 지우려 노력한다. 5 현실을 마주한 구체적 풍경을 그려왔다. 최근에는 재현을 떠나 그리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다만 그것이 회화라는 매체로 고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6 2015년 서울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입장에서 비슷한 환경 아래 활동하고 있는 주변 동료 작가들에게 시선이 간다. 7 명왕성 사진 이미지의 변천사를 한데 묶은 GIF 파일, 픽셀의 미미함에서 2015년 뉴호라이즌 호의 일환으로 완전한 해상도를 갖춘 명왕성의 모습을 보기까지, 정보의 지도를 그리는 이 운동은 내가 해석하고자 한 회화적 장면과 근접한 이미지였고, 올해의 특별한 장면임이 분명하다. 8 나만의 고유한 시스템을 창안하고 이를 운용해나가는 실험적인 방법.

5



권세진

권세진은 어린 시절의 학교, 조희시간, 국민체조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오래된 사진에서 시작되는 회화 작업을 선보인다. 옛것과 새것,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사라진 것들이 사이좋게 공존한다.

1 상실, 시간, 건조함. 2 사진, 특히 그 안에 이중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사진이 작업의 시작점이 된다. 작업의 재료가 된 사진들은 주로 나의 유년기 앨범에 있던 사진들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추억이 작업에 직접 반영된 적은 없다. 내 작업 속의 학교는 추억의 장소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이다. 보편적인 생각이나 사회적인 기준을 배우는 곳,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 사진 안에서 이뤄지는 행동들이 낯설게 다가왔다. 이 지점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3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욕망이 있다.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 그 중 그림을 통해 발언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방식이다. 4 종이의 물성과 질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려고 노력한다. 주로 종이에 작업을 하고 종이의 흡수성을 조절하는 바탕을 만들고 그림을 그린다. 작업을 하다 보면 색감이나 질감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붓을 멈춘다. 5 긴 그림의 역사를 탐구하고 그 안에 나를 위치시키는 것. 지금은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다. 6 주로 고전회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최근 청나라 말에 활동했던 화가 팔대산인의 그림을 유심히 보았다. 무심하고 고요한 그림 안에서 작가가 세상을 비웃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7 회화적인 장면은 늘 가까이에 있다. 최근에는 숲 속에서 뒤엉킨 나뭇가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시적인 풍경을 늘 회화적인 장면과 연관 지어서 바라보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을 회화로 재조합하는 과정은 또 다른 것이라 작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8 화면에서 물리적인 움직임을 좀 더 드러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재설정할 계획이다.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강조되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 중이다.



'국민체조', 한지에 아크릴 채색, 211x148cm, 2015



'왕실리 669-1', 한지에 아크릴 채색, 137.6x202.3cm, 2014



"Unspecified Space", Oil on Canvas, 60 x 72in, 2015



### 채지민

채지민의 '불특정 장소(Unspecified Space)' 는 말 그대로 정의할 수 없는 시공간의 한 장면이다. 작가는 자신의 사진첩에서 선택한 구조물, 오브제, 인물들을 오로지 조형성에 의거하여 한 화면에 배치한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모여 재미있는 위화감이 만들어진다.

1 파랑색, 제스처, 위화감, 2 주변의 모든 이미지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인물들의 제스처나 흥미로운 구조물, 독특한 오브제를 발견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있다. 영화와 연극도 좋아하는데, 나의 회화에 의도치 않게 드러나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3 평면회화처럼 작가와 작품, 감상자의 위치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매체는 없다. 작가는 작품을 만들어 공간에 전시를 하고 감상자는 그 공간에 들어와 작품을 감상한다. 이런 제한적인 특징이 다소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나는 그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45년 전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캔버스 화면에 내재되어 있는 물질적인 평면성과 가상의 공간성을 동시에 드러냈다. 두 가지의 속성이 한 화면 안에서 시각적으로 충돌하는 실험이었다. 그러한 생각이 이제는 나만의 방법으로 체화되었다. 최근 작업들에서는 대상이 갖고 있는 평면성을 극대화했다. 대상과 대상이 만나는 지점에 일종의 위화감을 더하는 나만의 방법이다. 5 내가 그리는 대상들은 늘 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회화 연습이다. 나만의 회화 양식을 꾸준히 찾고자 한다. 회화가 일종의 심미적인 언어라고 할 때, 나는 그 언어로 무슨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지보다는 언어 자체를 구축하는 과정에 더 관심이 있다. 6 한 명을 꼽으라면 데이비드 호크니. 최근에 좋아진 작가들은 아드리안 겐니(Adrian Ghenie), 뤼크 튀이만(Luc Tuymans), 빌헬름 사스날(Wilhelm Sasnal), 카린 맘마 앤더슨(Karin Mamma Andersson) 등이다. 7 최근 작업실을 옮겼다. 정면에 큰 유리창이 있는데, 새파란 하늘과 그 아래 맞닿아 있는 미니멀한 건물의 파사드의 경계에서 오는 괴리감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의 대상들을 내가 그리는 그림처럼 바라보는 버릇이 있는데, 이 장면 역시 그림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8 특정한 '화두'보다는 회화에 어울리는 '태도'를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진행 중인 작품에서 발견된 회화적 결핍들을 기억해두었다가 다음 작업에서 다루려고 한다.



"Canvas Gardening", Acrylic on Canvas, 91 x 116.5cm, 2015



"Densely Covered Canvas 01", Acrylic on Canvas, 26 x 18cm, 2015



"산왕리 10", Oil on Canvas, 197 x 333cm, 2014



"Aquarium & Pondfish", Oil on Canvas, 210 x 338cm, 2011



### 허수영

허수영은 계속해서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에서 마주치는 풍경을 그린다. 풍경의 모든 것을 묵묵히 캔버스에 옮기는 그의 작업 방식은 구도자적인 측면이 있다.

1 다수성, 중첩, 노동, 2 일단 아무 색이나 골라 캔버스에 괜히 한번 칠해본다.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나의 경우 거의 일 년에 한 번씩 작업실을 옮겨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풍경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림의 소재이자 여행, 삶, 그림의 접점이다. 3 그리는 것은 1차적이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붓질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면, 회화 작업은 평생에 걸친 흥미로운 도전과 수련이 될 것 같다. 4 대상을 생략해서 그리지 않는다. 가려지고 뒤덮여 보이지 않을 법한 것들도 일단 전부 다 그린다. 나의 그림은 이미지를 표피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화면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산이 뒷산을 가렸다고 해서 뒷산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보이지 않을 것들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보일겠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상이 좀 더 진실하게 표현되길 바란다. 5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한 구상회화에서는 공간의 압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물감의 질감에서는 시간의 압축을, 격정적인 붓터치에서는 감정의 압축을 느낀다. 공간, 시간, 감정을 평평한 면 위에 어떻게 압축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6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레이 드페오(Jay DeFeo), 바스 안 아더(Bas Jan Ader), 그리고 수많은 훌륭한 뮤지션들. 7 작년에 아프리카를 여행했는데, 오염되지 않은 곳의 밤하늘은 은하계를 육안으로 보는 것 같았다. 8 다음 그림이 이전 그림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 주로 생각한다.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시간에 따른 풍경의 변화를 더 빠르고 충실하게 기록하여 다양한 상황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 보일 것이다. 변화를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지난 시간을 머금은 현재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한다.

### 김지선

가늘고 진한 펜 선으로 상상의 풍경을 묘사하던 김지선의 작품은 최근 들어 크게 변화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상상의 풍경을 그린다. 관객으로 하여금 꽃 너머에 숨겨져 있는 풍경을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1 상상, 장식, 식물, 2(갈 수 없는) 공간, 기억이나 상상 속의 공간을 시각화시키는 것이 내 작업의 시작이자 주된 과정이다. 3 나에게 그림은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 있더라도 그림을 그려가다 감상하는 시간만큼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 온전히 생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전 계획(스케치, 자료수집) 없이 그림의 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화면 전체를 채워나간다. 어떤 것을 그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에 얽매어 형태나 색 선택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미지를 완성해나간다. 5 상상의 시각화, 실재하지 않는 공간을 캔버스에 재현한다는 모순적인 과정을 상상의 이미지로 풀어나가고 있다. 6 장식적이고 세밀한 이미지를 주로 다루기에 중세시대나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공예작품들을 좋아한다. 7 동네를 산책하다가 다섯 살 정도의 여자아이의 한 손으로는 엄마 손을, 한 손으로는 길가에 피어 있는 들꽃을 만지고 있는 장면을 봤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장면이 회화적인 순간으로 다가왔다. 8 나의 작업이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 화려한 색의 꽃들을 상상의 공간을 가리고 있는 층(Layer)으로 설정하고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공간을 함께 상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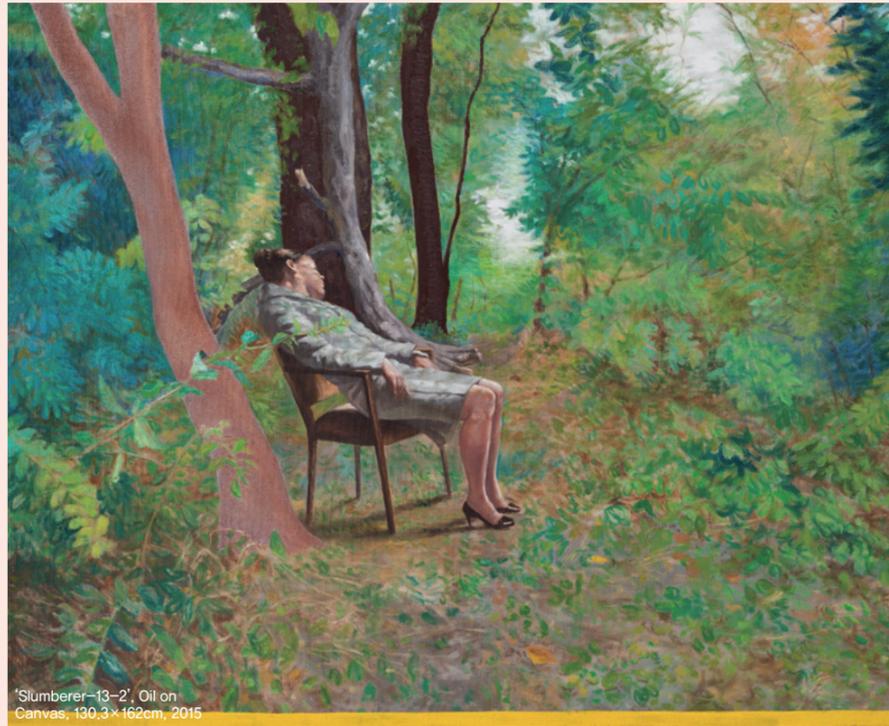
# 10 최정주

거친 캔버스천 위에 본능적인 욕망에 흔들리는 남녀의 키스 신이 담겼다. 판타지가 오히려 삶을 뚜렷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최정주작가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판타지, 사랑의 한순간을 포착했다.

1 느낌, 직관, 회화적 제스처. 2 작업의 시작점은 나 자신이다. 결국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3 그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왜 그림을 그리는가?'라는 질문은 내 인생의 화두다. 그림을 그리면서 내 삶이 조금은 분명해지는 것을 느낀다. 4 그림을 그리는 시간과 그림의 바탕을 만드는 시간이 비슷하다는 점. 그림의 바탕이 되는 캔버스 천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데, 가공이 되지 않은 울이 굵고 거친 황마를 사용한다. 아교를 여러 번 바르고 밀 칠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하기 좋은 바탕을 만드는데, 시간을 들여 만들어놓은 캔버스는 작업에 독특한 질감과 분위기를 더한다. 5 외부 세계와 끝없이 관계를 맺는 도구로서의 회화가 재현이나 시각, 감각으로 확장되면서 삶의 태도가 된다. 6 어렸을 적에는 고희와 마티스의 그림에 매료되었고, 대학 시절에는 세잔과



베이컨에게 영향을 받았다. 거의 모든 회화작가들이 영감을 준다. 7 종로의 어느 상점 앞 가로수 밑에 음식이 조금 남아 있는 그릇들이 쟁반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쟁반으로 몇 마리의 비둘기가 모여들어 밥을 먹는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 보았다. 장면 너머의 장면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8 언제나 바로 다음의 그림을 생각한다. 거의 모든 대가들은 그들의 인생이 막바지로 갈수록 더 좋은 그림을 그렸다. 나의 화두는 마지막 그림이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Slumberer-13-2', Oil on Canvas, 130.3×162cm, 2015



'눈 뜬 장님', Oil on Canvas, 53×46cm, 2014



'Schemed Happening-kiss 20', Oil on Canvas, 46×53c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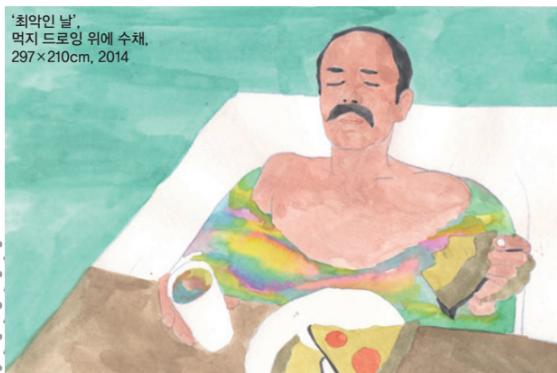
'마블링', 먹지 드로잉 위에 수채, 297×210cm, 2014

## 노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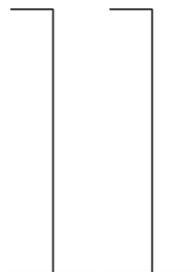
밴드 혁오의 앨범 커버 아트 작업으로도 알려진 노상호는 매일 성실하게 하나의 그림과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수채 물감을 사용한 드로잉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텍스트를 곁들이는 'Daily Fiction' 시리즈는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창조한 환상의 세계다.



1 이야기, 트레이싱(전사 작업), 수집. 2 나는 수집된 원본 없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수집한 이미지와 이야기들이 작업의 시작점이 된다. 3 회화가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 이동하면서 작게 그리고, 빠르게 작업한다. 4 원본 사진을 트레이싱하는 과정을 통해 그림을 변형하여 새로운 그림으로 만들어낸다. 수집한 이야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투과한다. 전날 보았던 그림의 스타일을 따라 하기도 하고, 전날 읽었던 책의 문체를 따라 하며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나의 그림은 여러 스타일로 나타난다. 앨범 커버 아트 작업을 한 혁오의 경우 첫 번째 앨범 (20)과 두 번째 앨범 (22)의 그림이 이어진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 붙여나갈 것이다. 하나의 앨범이 아니라 혁오의 앨범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5 나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야기를 짓는 과정'이다.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짓고,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들려 보내고, 다시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수집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행동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나만의 리서치 방식이기도 하다. 6 너무 많다. 헨리 다거, 헤르난 바스, 박민규, 에드거 앨런 포, 모임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키리코 나나시, 우라사와 나오키... 가장 작업이 안 될 때 듣는 음악은 모임별의 음악이고, 그 다음으로는 시큐어 로스의 음악을 좋아한다. 7 최근 플래시를 터뜨려서 찍은 사진들이 매우 회화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8 매일 한 장 이상의 그림을 그려내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에 대한 애정이 다른 작가들보다 적은 편이다. SNS에 올리거나 인터넷으로 전파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생각한다. 너무 가벼운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내 작업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악인 날', 먹지 드로잉 위에 수채, 297×210cm, 2014



'댄싱 머신', Acrylic on Panel, 58×49cm, 2014



'보들레르의 유령들', Acrylic on Panel, 54×78cm, 2015



'사이렌', Acrylic on Panel, 52×74cm, 2014



'포테이토 카우치', Acrylic on Panel, 73×60cm, 2014

## 왕선정

왕선정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다. 취하고 쯤지고 너털너털해진 인물들은 각자의 어두움과 일상적인 불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1 분열되는 이미지, 인물, 삶. 2 사실 나는 아주 많은 전시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접하지 않는다. 작업의 동기는 대개 나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막연한 답답함이나 우울함, 불안감을 느낄 때 작업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본 취한 사람들에게서 느낀 것은 연민과 혐오의 상반된 감정이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망가지고 무너져 내린 모습을 한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그 '약함'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각자의 불안이나 공포의 대상을 외면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이면부터 인정하고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 솔직히 말하면, 회화라는 매체가 가장 단순하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창작에 대한 욕구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솟구치는 편이다. 그럴 때 무언가를 설치하고 기다리고 조작하느라 나의 동물적인 몸짓을 멈추지 않아도 되는 그림이 나에게 딱 맞는 매체다. 4 머릿속에서 어렵듯한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스케치 없이 화면에 색 덩어리들을 만들어 간다. 초반엔 즉흥적으로 진행하고 우연의 효과를 이용하기도 한다. 사실 이 과정도 긴장되는 순간이다. 즉각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요구한다. 빠르게 붓을 휘저어서 어떤 얼룩들을 만들어내고 그 얼룩이 '이미지'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한다. 5 지금의 목표는 아름다운 색면의 조화와 인물의 표정을 담는 것. 6 최근 완전히 반해버린 화가는 로베르 콤파스다. 콤파스는 인간으로서 불행하고 작가로서 프로페셔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그림은 완벽했다. 그의 고통스러운 정신 세계가 천재적인 그림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미쳐버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7 잊었던 순간의 기억들이 강렬한 이미지처럼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런 이미지들이 회화적으로 느껴진다. 8 '살아남기'. 작가로서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1] 에디터/김지선

